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에 관한 태도 연구*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사연구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표본은 조사가 가능한 수도권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종 321명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중요성과 유용성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 비해 낮았다.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태도 조사연구태도 차이는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서만 발견되었다.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견해와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견해가 조사연구태도인 중요성과 유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과 조사연구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았다.

주제어: 조사연구태도, 사회복지전공학생, 사회복지교육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사회복지 교육은 뚜렷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 없이 미국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만족해야 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등장,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관들의 대거 신설과 함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과들 또한 대거 신설되기에 이른다. 2005년 현재 전국에 사회복지학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B00362).

과 및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194개이며, 졸업생은 모두 6,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러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확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급증, 사회복지학과의 증설 등 사회복지학의 외적 조건의 발전은 동시에 한국형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모색,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전문성제고, 학문으로의 정착,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입증 등 막중한 과제를 사회복지학에 요구하게 되었다(이혜경, 1995; 김연옥, 1998; 김인숙,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방법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중요시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15년에 이미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가라는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의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복지교육의 과학화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1959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의 교과과정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를 보다 강력하게 통합할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 교육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iar, 1981; Rubin, 1981; Zlotnik, Biegel, and Solt, 2002). 특히 근거 기반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과학적 기반의 실천(scientifically based practice), 발전적 연구와 활용(developmental research and utilization: DRU)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Whittaker, 200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에서도 조사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조사원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조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전문직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조사연구들(Kirk and Rosenblatt, 1981; Olsen, 1990; Lazar, 1991; Secret, Rompf and Ford, 2003)에 의하면, 조사연구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조사연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조사연구를 자신들의 직업 계획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조사연구들(Royse and Rompf, 1992; Wainstock, 1994; Green, Bretzin, Leininger and Stuffer, 2001)에 의하면, 학생들은 조사연구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연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학생들의 학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ecret et al.,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연구결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사연구에 대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태도는 이들이 졸업 후 현장에 나가서 조사연구를 활용하게 하는 중요한 예측요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대학 재학시절 갖게 된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졸업 후 사회복지실천가가 되었을 때 기관 프로그램이나 정책, 그리고 실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교육자들에게도 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조사연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입방법을 사용할 윤리적 책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Klein and Bloom, 1994; Reid, 1994; Barber, 1996; Cournoyer, 2004), 장래에 사회복지사가 될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사회복지교육과 조사연구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교육과 조사연구

1959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의 교과과정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교육에서 사회복지실천과 조사연구를 보다 강력하게 통합할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막대하게 증가된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책임성 완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6년에는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의 활용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조사연구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후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에서 조사연구활용을 강화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979년 오헤어 미팅(O'Hare meeting)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조사연구와 평가의 사용이 언급되었다(Mattaini, 2003). 효과적인 전문가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관심이 증가된 계기가 되었다. 브라이어(Briar, 1981)는 조사연구가 현장에 활용되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는 곧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 연구자,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루빈(Rubin, 1981)도 학생들이 실무기관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통합적인 교과과정과 기관의 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회복지대학들은 실천과 조사연구를 교육 속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Kirk and Rosenblatt, 1981), 그 연속선상에서 단일사례설계 방법의 중요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Weinbach, 1981; Bloom and Fischer, 1982). 2000년대에 와서는 IASWR(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Work Research)이 창설되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실무와 조사연구가 연결되고, 조사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Zlotnik et al., 200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교육도 이러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이 사회복지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방법과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

다. 다만 1990년에 이창호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과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후 몇 학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김연옥, 1993; 황성철, 1998; 정순돌, 2006). 1998년에는 사회복지학회에서 조사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이를 기획주제로 선정하고, 조사연구의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조사론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교육의 모델은 '조사연구 프로젝트로서의 직접실천(Direct Practice as Research Project)', '치료로서 조사연구기술(Research Techniques as Therapy)', '임상과학자(The Clinical Scientist)', '조사연구 소비자(The Research Consumer)', '조사연구 전문가(The Research Specialist)' 등 5가지로 정리된다(Rosenblatt, 1981, 18-22). 첫번째 모델인 '조사연구 프로젝트로서의 직접실천'은 조사연구 방법과 과학적 접근법은 직접실천활동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 조사연구를 배워야 한다는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서 교과과정의 목적은 실천가와 조사연구자 사이에 유사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모델인 '치료로서 조사연구기술'은 앞의 모델에서 일부 진보된 것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 같은 치료적 행위에서 조사연구방법의 측정기술 등이 임상가의 기술로 통합되어 교육된다는 모델이다. 허드슨과 휘셔(Hudson and Fischer)는 이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할 수 없다면 치료할 수 없다는 격언을 남겼다. 세 번째 모델인 '임상과학자'는 Briar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 임상과학자는 실천에서 조사연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모델이다. 즉 임상과학자가 실시한 조사연구 프로젝트는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실천가-연구자(practitioner-researcher)'라는 용어로도 불리우며, 대학에서 이를 가르칠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Wood, 1980). 네 번째 모델인 '조사연구 소비자'는 조사연구방법을 실천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3가지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즉 조사연구 실천가의 양성보다는 조사연구를 실천가들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조사연구 소비자 모델과 유사하다. 트리포디, 헬린, 메이어, 길버트와 스펙트(Tripodi, Fellin, Meyer, Gilbert, and Specht) 등이 이 모델을 전파한 학자들이다. 이들은 정책과 임상의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조사연구 과목을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고급조사연구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시각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다섯째 모델은 '조사연구 전문가'로 이 모델의 기본가정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로 조사연구를 제안한다. 이 견해대로라면 사회복지대학은 조사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조사연구를 이해하여 조사연구로서의 직접적 실천에 근접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조사연구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네 번째를 포함한다. 실제로 사회복지 대학원 교육에서 조사연구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조사연구를 활용하는 소비자로 훈련하는 것과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진행자로 시키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태도와 관련요인들

(1) 조사연구태도

조사연구(research)란 연구대상을 조사자가 실증적 방법으로 직접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의미한다(배규한·이기재, 2003). 조사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이론적 설명, 연구문제, 방법론과 자료수집방법이 체계적으로 묘사되어있으며, 결과의 보고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저널의 글이다(Rosen, Proctor, and Staudt, 1999). 몇몇 조사연구중 이들 요소가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메타분석과 같이 조사연구에 대한 연구(research study)로서 원래의 발견(original findings)을 보고하는 연구도 조사연구에 포함된다. 조사연구는 기술, 설명, 탐색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모두 포함된다. 조사연구태도란 조사연구수행자 또는 조사연구를 가르치고 교육 받는 자 등이 앞서 설명한 조사연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을 의미한다. 조사연구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거나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복지교육을 받고 있는 전공학생들이 조사연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초점을 둔다.

(2) 조사연구태도와 관련요인들

사회복지전공생들은 조사연구과목, 실습경험, 그들 자신의 공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 경험,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사회복지 전공생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를 Kirk-Rosenblatt Research Inventory(K-RRI)를 사용해 조사한 연구(Kirk and Rosenblatt, 1981)에 의하면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28.1, 유용성 평균은 21.2로 나타났다. 이는 84%의 학생들이 유용성 지수의 중간 점보다 평균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연구에 대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슨(Olsen, 1990)이 행한 조사연구와 실천의 통합 프로젝트 전후 학생들의 중요성 태도는 평균 28.8에서 29.9로, 유용성 태도는 22.4에서 24.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발견된다(Bason, Iacono-Harris, and Kraybill, 1982; Siegel, 1985; Roberts, 1989; Gleeson, 1990; Lazar, 1991; Secret et al., 2003).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rk and Rosenblatt, 1981). 사회복지전공생들이 학부에 있느냐 대학원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태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사학위 과정 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석사학위 과정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조사연구 실행 경험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Kirk and Rosenblatt, 1981). 성별에 따라서도 조사연구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학적 지식이 적은 여학생들이 조사연구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cret et al., 2003). 다음으로 조사연구와 관련된 변수 중 조사연구에 관한 과목을 많이 수강했을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rk and Rosenblatt, 1981).

이와는 반대로 시겔(Siegel, 1983)의 연구에서는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의 태도를 조사했는데 학생들의 태도는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과 주저함에 대한 기술도 여러 글들에서 발견된다(Wainstock, 1994; Forte, 1995; Green et al, 2001). 이들 연구들은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두려움이 수학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표현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Royse and Rompf, 1992). 이와 같이 조사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사회복지학이 아닌 다른 전공학생들의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Elmore and Vasu, 1980; Perl and Kahn, 1985; Papanastasiou, 2005).

한편 사회복지 교수, 실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태도를 비교한 연구(Roberts, 1989)에 의하면, 교수진과 실천가들은 학생들 자신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이 조사연구의 통합에 덜 적극적이라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Poulin, 1989). 교수가 조사연구의 유용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으며 실천가들이 가장 낮았고, 학생들이 그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복지 조사연구자들과 교수들은 보편적·양적연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들의 경우 인간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데 강점을 나타내는 질적 연구에 보다 많은 선호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1989). 학생들은 경험주의에 기반한 실천의 성격을 지닌 활동에 참여하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eeson, 1990; Olsen, 1990).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정의 완성에서 그들의 모델들에 조사연구-기반의 실천 지침들을 강조하고 활용한다고 보고했다(Mullen, Bostwick, Jr. and Ryg, 1980).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에서 나온 변수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 희망 여부', '소속대학'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은 사회복지에서 임상정신과 과학정신 중 어디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의 관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과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조사연구태도를 연구한 바는 없지만, 사회복지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변수가 조사연구태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김연옥, 1993; Penka and Kirk, 1991). 본 연구에서 이 변수를 추가하고자 한다.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 희망 여부'와 '소속대학' 등을 추가한 이유는 앞으로의 실무환경과 현재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조사연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위해서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소속 대학 선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가 가능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10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 조사 협조가 가능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2개를 포함하여 총 12개 대학이었다. 예비조사는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문항 등을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이 사용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나 박사과정생의 응답을 제외한 3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1) 조사연구태도

조사연구태도는 커크와 로젠블레(Kirk and Rosenblatt, 1981)가 개발한 Kirk-Rosenblatt Research Inventory(K-RRRI)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중요성(importance), 유용성(usefulness), 연구의 비편견적 본질(Unbiased Nature)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별로 7개 문항, 5개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1에서 6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중요성이 .65, 유용성이 .71, 비편견적 본질이 .78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연옥(1993)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편견적 본질'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성'과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편견적 본질은 사회복지 조사연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위 영역이지만, 문항의 구성을 보면 '많은 사회복지 조사연구는 타당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자기 비판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등과 같이 유용성 부분과 중복되는 문항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연구태도는 비편견적 본질을 제거한 후 중요성 7개 문항, 유용성 5개 문항만을 사용하여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김연옥의 연구에서는 중요성에 관한 내적일치도 계수 α 가 .72, 유용성이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성이 .560, 유용성이 .711로 나타났다.

(2) 조사연구 관련 변수

①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견해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견해는 Secret 등(2003)이 개발한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호감 지수(Research Course Appeal Index)'와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두려움 지수(the extent of fear of the research cours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호감 지수'는 '조사연구 수업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 '조사연구 수업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의 2개 항목으로 이를 각각 1에서 10점으로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1점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10점은 매우 관심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 두 항목을 평균하여 계산한 값이 조사연구에 대한 호감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822로 나타났다.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두려움 지수'는 조사연구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1에서 10점으로 점수화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1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10점은 두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통계적 지식 수준

조사대상 학생들의 통계적 지식수준은 '통계적 지식 지수(Statistical Knowledge Index)'를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위트킨(Witkin et al., 1980)과 Secret 등(2003)이 사용한 방법이다. 이들은 8개의 통계학적 심볼, 즉 F, df, t, r, χ^2 , $p < .05$, \bar{X} 또는 M, SD 또는 S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면 1점, 틀린 대답을 하면 0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0점에서 8점 사이에 분포한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통계학적 지식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931로 나타났다.

③ 조사연구 관련 과목 수강 수

조사연구관련 과목 수강 수는 사회복지조사론, 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통계학 개론, 통계조사론, 표본조사론 등 실제 수강한 과목의 수로 측정하였다.

④ 학회참여경험

학회참여는 참여한 학회의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3)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은 펜카와 커크(Penka and Kirk, 1991)가 개발한 11개의 문항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의미가 전달되는 6개의 문항으로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개 항목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능력은 실무경험과 지혜에 달려있다', '사회복지사의 직관력이 과학보다 가치가 있다',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질은 측정될 수 없다', '효과는 바로 측정되기 어렵다', '개입을 수량화하기 어렵다', '사회복지는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이다' 등이다. 5점에 가까울수록 임상정신이 전통적인 사회사업적 경향을, 즉 사회사업가의 직관, 경험 등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보다 과학적이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556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배경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적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실무경력,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 희망 여부, 소속대학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측정하였으며, '나이'는 만나이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학년에 따라 구분하였다. '실무경력'은 실무경력의 개월 수로 측정하였으며,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 희망 여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면 1, 희망하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소속대학'은 응답자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3)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관련 변수 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연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26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81.6%, 남성은 59명으로 전체의 18.4%를 나타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많은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성비를 본 조사가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5.36세로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24세 이하가 169명(5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25-30세 이하로 116명(36.3%), 31세 이상이 36명(10.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학부과정은 212명(66.4%)이었으며, 석사과정은 109명(33.5%)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실무경력과 관련한 항목에서 전체 대상자의 80%가 넘는 259명이 실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경력이 있는 대상자들도 대부분이 24개월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평균 경력 개월 수는 6.8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전공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경우 동일한 직종에 취업할 것이라는 응답이 260명으로 81.0%에 이르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의 취업을 계획하는 대상자는 56명으로 1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대학현황은 수도권이 240개로 74.8%였으며, 지방은 82개로 25.2%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성별	남자	59(18.4)	사회복지 실무경력	없음	259(80.7)
	여자	262(81.6)		24개월 이하	33(10.3)
나이	24세 이하	169(53.0)		25개월 이상	29(9.0)
	25-30세 이하	116(36.3)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 희망여부	있음	260(81.0)
	31세 이상	36(10.7)		없음	56(17.4)
교육 수준	학부과정	212(66.4)	소속대학	수도권	240(74.8)
	석사과정	109(33.5)		지방	81(25.2)

2) 조사연구관련 특성

(1)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태도

전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를 조사연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중요성의 경우 평균 5점 만점에 3.58로 나타났으며, 유용성의 경우 3.57로 나타나 평균은 비슷하였다. 즉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조사연구가 중요하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각각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물을 언제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항목의 평균이 4.0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성이 조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3.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로 볼 때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연구동향 파악이나 효과성 등과 같은 과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유용성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유용하지 않다.'와 '과학적 연구가 유용한 사회복지적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의 평균 점수가 각각 2.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역코딩 해 해석해 보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조사연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연구의 결과가 복잡한 실무에 적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중요성과 유용성 각 점수를 항목 수로 곱해 보면 중요성과 유용성이 각각 25.06과 17.85로 Kirk and Rosenblatt(1981)의 연구결과 28.1과 21.2, 그리고 Olsen(1990)의 연구결과 28.8과 22.4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전공학생의 특성에 따라 조사연구에 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중요성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전혀 없었다. 다만 유

용성에서는 교육수준과 졸업후 동일분야에 취업희망 두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유용성 측면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사연구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의 유용성 평균은 3.51이었으며, 대학원은 3.67로 나타났다($t=-2.417, p<.05$). 또한 졸업 후 전공희망의 경우도 유용성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졸업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는 집단의 유용성 평균이 3.62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3.3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96, p<.001$).

<표 2> 응답자의 특성별 조사연구태도 비교

	중요성			유용성			
	빈도	평균(SD)	t/ F	빈도	평균(SD)	t/ F	
성별				성별			
남성	58	3.57(.39)		남성	58	3.54(.43)	
여성	257	3.59(.39)	-.212	여성	256	3.57(.57)	-.447
나이				나이			
24세 이하	167	3.57(.36)		24세 이하	164	3.51(.54)	
25-30이하	114	3.59(.39)		25-30이하	115	3.64(.53)	
31세 이상	32	3.66(.49)	.639	31세 이상	33	3.56(.63)	2.005
교육수준				교육수준			
학부	209	3.56(.37)		학부	206	3.51(.49)	
대학원	106	3.63(.42)	-1.434	대학원	108	3.67(.61)	-2.417*
졸업후전공희망				졸업후전공희망			
희망	255	3.58(.39)		희망	254	3.62(.55)	
희망하지 않음	55	3.59(.41)	-.262	희망하지 않음	55	3.34(.44)	3.996***
소속대학				소속대학			
수도권	235	3.58(.39)		수도권	234	3.58(.57)	
지방	80	3.58(.38)	.042	지방	80	3.53(.48)	.833

* $p<0.05$; ** $p<0.01$; *** $p<0.001$

(2)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기타 조사연구 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기타 조사연구 관련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호감지수'를 보면, '조사연구 수업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10점 만점중 6.84점이었으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7.90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두 항목을 합한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호감 지수 점수는 7.38로 Secret 등(2003)의 조사결과 7.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두려움 지수'를 보면, 10점 만점중 6.62로 Secret 등(2003)의 조사결과 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계적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적 심볼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8개중 평균 2.9개의 심볼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Secret 등(2003)의 조사결과 0.91 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 관련 수강 과목수를 보면 전혀 수강한

경험이 없다는 42명(13.1%)을 제외하면 나머지 86.9%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평균 수강조사과목수는 1.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전공학생을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조사연구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호감, 통계적 지식수준, 조사연구 관련 수강 과목 수 모두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호감의 경우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의 호감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893$, $p<.001$), 통계적 지식수준의 경우도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의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13.978$, $p<.001$), 조사연구 관련 수강 과목 수의 경우도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의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810$, $p<.001$). 그러나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두려움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부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관련 특성 비교

구분	빈도	평균(SD)	t	df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호감				
학부	206	6.91(1.86)		
대학원	106	8.28(1.55)	-6.893***	247.64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두려움				
학부	207	6.83(2.03)		
대학원	106	6.29(2.74)	1.770	165.586
통계적 지식수준				
학부	213	1.53(2.23)		
대학원	108	5.61(2.89)	-13.978***	319
조사연구 관련 과목 수강 수				
학부	213	1.28(.97)		
대학원	108	2.16(.94)	-7.810***	221.238

* $p<.05$; ** $p<.01$; *** $p<.001$

3)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태도에 관한 회귀분석

조사대상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6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가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태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연구태도를 중요성과 유용성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중요성의 경우 <표 4>에 나타난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463$, $p<.001$),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16.0%로 나타났다. 중요성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조사연구수업 태도 중 조사연구수업호감($\beta=.374$)이었

으며, 다음은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beta = -.224$)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태도 중 호감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이 임상에서 멀수록 조사연구는 중요하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분야 취업을 희망할수록($\beta = .134$) 중요성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용성의 경우도 <표 4>에 나타난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822, p < .001$),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다. 유용성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중요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연구수업 태도 중 조사연구수업호감($\beta = .23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beta = -.188$)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태도 중 호감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이 임상에서 멀수록 조사연구는 유용하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처럼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태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중요성			유용성		
	b	SE	beta	b	SE	beta
상수	3.238	.339		4.170	.465	
배경변수						
성별	.074	.061	.071	.024	.085	.016
나이	.003	.007	.035	-.004	.010	-.029
교육수준	-.010	.024	-.041	-.050	.033	-.142
실무경력	.001	.001	.040	.001	.002	.041
전공취업희망	.136	.060	.134*	-.130	.084	-.091
소속대학	.062	.056	.070	.020	.078	.016
조사연구관련변수						
조사연구수업호감	.078	.013	.374***	.072	.018	.238***
조사연구수업두려움	.000	.010	-.002	-.005	.014	-.020
통계적 지식수준	-.002	.010	-.019	.028	.014	.160
관련 과목 수강 수	-.013	.026	-.034	.024	.037	.046
학회참여경험	.082	.053	.101	.004	.073	.004
사회복지실무본질 관점						
사회복지실무본질 관점	-.241	.062	-.224***	-.284	.086	-.188**
R-square		.160			.172	
Adjusted R-square		.124			.136	
F		4.463***			4.822***	

* $p < 0.05$; ** $p < 0.01$; *** $p < 0.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조사연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 수업에 대한 호감 점수는 선행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두려움 점수는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적 심볼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 중 중요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조사연구수업 태도 중 호감점도와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으로 두 가지 태도에서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에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태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조사연구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 과목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모두 조사연구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조사연구가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 중 중요성과 유용성 모든 측면에서 조사연구 과목에 대한 호감점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조사연구과목에 대한 호감점도가 클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사연구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목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예로는 사회복지 조사연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한 결과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시자료를 개발할 수 있겠다. 또는 현장의 실천가가 현장에서 조사연구가 적용된 사례를 제공하고, 함께 토의함으로써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교육에서 조사연구는 임상실천가와 정책분석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강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견해는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 태도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상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 태도는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치 임상을 선택하게 되면 조사연구는 잘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은 임상실천가들에게도 조사연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가들도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조사연구관련 저널을 읽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무위주의 조사연구

구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 조사연구과목에 대한 모델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자와 실천가를 분리할 것인지, 이를 연합하여 교육할 것인지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모델 중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조사자와 실천가를 통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이를 표방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자와 실천가를 양성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을 조사연구 소비자로 양성할 것인지, 조사연구 전문가로 양성할 것인지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조사연구 과목의 방향은 어떻게 맞추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모델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일반화된 대표성 있는 표본보다 수도권의 조사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통계연보
- 김연옥. 1993.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 201-224.
- _____.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인숙. 2004. "한국사회복지실천학문의 정체성". 2004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53.
- 배규한·이기재. 2003. 『통계조사방법론』.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이창호. 1990. "한국사회사업의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연구』 2: 95-120.
- 이혜경. 1995.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자료집 63-74.
- 정순돌. 2006.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연구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51-271.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215-245.
- Barber, J. G. 1996. "Science and social work: Are they compatible?" *Research and Social Work Practice* 6: 379-388.
- Bason, R. E. Jr., D. A. Iacono-Harris, and D. B. Kraybill. 1982. "Statistically speaking: Social work students are significant."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8: 20-26.
- Bloom, M. and J. Fischer. 1982. *Evaluat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ccountable Professiona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riar, S. 1981. "The project on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pp.1-5. in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edited by S. Briar, H. Weissman,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Cournoyer, B. R. 2004. *The evidence-based social work skills book*. Boston, MA; Allyn and Bacon.

- Elmore, P. B., and E. S. Vasu. 1980.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variables and statistics achievement: Build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 215-222.
- Forte, J. A. 1995. "Teaching statistics without statistic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1: 204-218.
- Gleeson, J. P. 1990. "Engaging students in practice evaluation: defining and monitoring critical initial interview component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 295-309.
- Green, R. G., A. Bretzin, C. Leininger, and R. Stauffer. 2001. "Research learning attributes of graduate students in social work, psychology, and busines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7: 333-341.
- Kirk, S. A. and A. Rosenblatt. 1981. "Research Knowledge and Orientation among Social Work Students." pp. 29-39. in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edited by S. Briar, H. Weissman,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Klein, W. C. and M. Bloom. 1994. "Is there an ethical responsibility to use practice methods with the best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in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work research*, edited by W. W. Hudson and P. S. Nurius. Boston: Allyn and Bacon.
- Lazar, A. 1991. "Faculty, practitioner, and student attitudes toward research."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7: 34-40.
- Mattaini, M. A. 2003. "Constructing Practice: Diagnosis, Problems, Targets, or Transactions?" pp.156-166. in *Developing practice guideline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issues, methods, and research*, edited by A. Rosen and E. K. Proctor. NY, Chichester,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 Mullen, E. J., G. J. Bostwick Jr., and B. Ryg. 1980. "Toward an integra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a one-quarter course." pp. 30-41. in *Teaching social work research: alternative programs and strategies*. edited by R.W. Weinbach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Olsen, L. 1990. "Integrating a practice orientation into the research curriculum: the effect on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6(2) : 155-161.
- Papanastasiou, E. 2005. "Factor Structure of the Attitudes toward research scal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Education*, 2005, 16-26.
- Penka, C. E. and S. A. Kirk. 1991. "Practitioner Involvement in Clinical Evaluation." *Social Work* 36: 513-518.
- Perl, K. G. and M. W. Kahn. 1985. "Psychology 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research: A national survey." *Teaching of Psychology*, 10(3): 139-143.
- Poulin, J. 1989. "Goals for undergraduate social work research: A survey of BSW program direct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 284-289.

- Reid, W. J. 1994. "The empirical practice movement." *Social Service Review* 68: 165-184.
- Roberts, C. A. 1989. "Research methods taught and utilized in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3: 65-86.
- Rosen, A., E. K. Proctor, and M. M. Staudt. 1999. "Social work research and the quest for effective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1): 4-15.
- Rosenblatt, A. 1981. "Research models for social work education." pp. 17-20. in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edited by S. Briar, H. Weissman,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Royse, D. and E. L. Rompf. 1992. "Math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8: 270-277.
- Rubin, A. 1981. "Integrating practice and research curricula: a synthesis of four regional conferences." pp. 48-58. in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edited by S. Briar, H. Weissman,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Secret, M., E. L. Rompf, and J. Ford. 2003. "Undergraduate research courses: a closer look reveals complex social work student attitud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9(3) : 411-422.
- Siegel, D. H. 1983. "Can research and practice be integrated in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9: 12-19.
- Siegel, D. H. 1985. "Effective teaching of empirically based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 40-48.
- Wainstock, S. L. 1994.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Teaching research methodology to reluctant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3: 313-322.
- Weinbach, R. W. 1981. "Variations in social work research education." pp. 40-47. in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edited by S. Briar, H. Weissman,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Whittaker, J. K. 2002. "The Practice-Research Nexus in Social Work: Problems and Prospects." *Social Service Review* 72: 686-694.
- Witkin, S. L., J. L. Edleson, and D. Lindwey. 1980. "Social workers and statistics: Perception, attitudes, and knowledg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 313-322.
- Wood, K. M. 1980. "Experiences in teaching the practitioner-researcher model." pp. 13-22. in *Teaching social work research: alternative programs and strategies*. edited by R. W. Weinbach and A. Rubi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Zlotnik, J. L., D. E. Biegel, and B. E. Solt. 2002. "The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Work Research: Strengthening Social Work Research in Practice and Polic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2(2): 318-337.

Social Work Students and Their Attitude toward Research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research attitude of social work student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search attitud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ocial work students around capital city in Korea. The sampling methods used in this study is a purposive sampling strategy. Data were collected by answering the questionnaire in class. Data from 321 of social work students were finally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research attitude by social work students in Korea is relatively lower than previous study. The variables affecting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research are related to the attitude of research class and the attitude of nature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implications of social work research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research attitude, social work students, social work practice

[논문접수일 2006. 7. 3. 게재확정일 2006. 9. 20.]